

남도시론

산천은 의구(依舊)치 못하고



최한식

〈전남도립대 교수·시인〉

별별 같은 더위의 기승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함이 물씬한 가을 맛이다.

변하는 것이 조석(朝夕)으로 가장 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데 우리 시조 가운데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멋진 작품이 있다.

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의 오백년 수도 개성을 찾은 고려 유신(遺臣)의 참 씩씩하고 허전한 회고담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의구한 것, 변하지 아니한 것의 대명사로 대표되는 산천이 어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한바탕의 먼지가 되는 현장을 목격했으니 그 때의 심정이라니, 한마디로 만감이 교차되었다.

시대 성종 시절 나주 출신 금남 최부(1454~1504)가 1488년 1월 3일 제주도에 부친상 소식을 듣고 빈소를 향하여 출발했다가 폭풍우에 밀려 14일간 천신만고의 표류 끝에 당시 중국 절강성 '임해현' 우두외양(牛頭外洋: 바위 모양이 소머리를 닮은 산)에 도착하여 약 6개월의 노정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 첫 귀척지이다.

고 최부 선생이 그 곳을 좌표 삼아 귀척지로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산을 중시하는데 저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싶었다.

'의구하다'는 산천'인데, 아, 이젠 오백여 년 전 최부 선생도 간 데 없고 그가 밟을 디딘 우두외양도 간 데 없으니 이제 인결과 산천이 모두 다 유한한 것인가 싶어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이제 무엇을 무한하다고 해야 좋을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참 갑갑하다. 가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체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했는데 산천이 의구치 못하다면, 아니 산천이 유한한 생명을 지닌 사람과 같다면, 이제 사람이 얼마나 더 오만해질까? 얼마나 더 오만하고 나서야 산천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인가?

社說

추석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마음이 바빠지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힘들지만 추석은 추석이다.

그러나 장을 보러 나선 주부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장마 등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보기가 겁난다.

채소·과일 값과 생필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힘든 사람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 뿐만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찾아가 추석 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주요 추석 차례용품 가격을 조사해 비교해본 결과 전통시장이 훨씬 싼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선물을 준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추석선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광주광역시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주부들이라면 자녀들을 데리고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의 한 곳인 양동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독자마당

연휴 빈집털이 예방하자

추석 연휴를 맞아 빈집털이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빈집털이의 예방법으로는 장기간의 출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환관문과 창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작은 창문이라도 실마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람 머리만 들어갈 정도의 유리창문이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문앞에 사유나 신문 등이 쌓여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연락해 낫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같이 간단한 예방법을 숙지해 모든 광주시민이 이번 추석에는 빈집털이 절도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진훈·광주경찰청 제1기동대>

기고

나양기 전남도농업기술원 농학박사



소비되어야 하는 배의 유통구조를 볼 때 추석이 지난후의 과실 가격 지지와 소비상승이 더욱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영양가 높은 제철 과실로 추석 선물을...

올해 추석(秋夕)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秋分)과 겹치면서 더욱 가을의 의미가 느껴지는 명절이 될 것 같다.

우리 인간들의 무지에 화가 났는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급변한 해도 외국농산물과 농자재 값 상승으로 힘든 농민들을 세 번이나 울리고 있다.

두 번째는 열매가 맺히는 중요한 시기에 비가 하염없이 내려 검은별무늬 병이라는 습진곰팡이가 까만 가루의 곰팡이가 생겨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기도 하여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세 번째는 지금의 기상이다. 가을에 맛있고 색깔이 고운 과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햇빛인데 8월, 9월 내내 비가 오는 흐린 날만 지속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여기에 얹힌데 달린 격으로 지난 2009년에 생산한 묵은 배마저 제대로 판매가 되지 않아 재고가 쌓여 있는 마당에 햇배가 출하되고 있는데 가격이 싼 통배가 농민들의 표정이 밝질 못했다.

\* 독자투고·기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준성의 <174> 그전산책

屈原離騷

김윤길 근원원 떨어질 이 근심할 소

굴원의 대표작 <이소(離騷)>를 말한다. 모두 2,477자로 이루어진 장편시로 초(楚)나라의 노래인 <초사(楚辭)>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굴원이 유배를 간 사정이 있다. 본래 초나라 왕족과 가까운 혈족인 굴원은 뛰어난 글재주를 지녔으며, 이로 인해 회왕(懷王)의 신임을 얻었다.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의는 "저는 6리를 드린다고 했을 뿐입니다."하고 대답했다. 이에 화가 난 회왕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도리어 초나라의 6군까지 빼앗길 정도로 대패하고 말았다.

리가 되었다." 군주의 사람됨은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인데, 회왕은 그렇지 못했다.

<離騷>는 현실에서 쫓겨난 자의 노래이다. 작품 속에 수많은 등장하는 향기로운 풀이름은 시공장만도 못한 세상에 대항하는 굴원의 고결한 이미지로 작용한다.

<문학박사·조선대 한문학과 강사>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팩스 : 062-671-6251 ◇전자우편 : ocn@namdonews.com

南道日報 THE NAMDO ILBO
회장 유준상 사장·발행인·편집인 박성호 인쇄인 서정구 편집국장 김성의
1998년 5월10일 창간 등록번호 광주 가 15(일간) 등록년월일 2006. 6. 23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41-4 (우편번호 503-774) 구독료 월 8,000원
대표전화 062)670-1000 기사제보 062) 673-2580 편집국 FAX 062)671-6251~2 광고국 FAX 062)673-2411
부속실 062)670-1005 정경부 062)670-1090 서울지사 02)3437-4757
논설실 062)670-1155 사회부 062)670-1080 광고기획국 062)670-1007
편집국 062)670-1030~94 기획특집부 062)670-1030 판매부 062)670-111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벽을 여는 늘 깨어있는 신문
남도일보와 함께하는 아침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www.namdonews.com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Jeollanam-do and Jeonju areas, including phone numbers and rates.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062) 670-1111 ■ 광고문의: (062) 670-1007